



가톨릭마산

사순 제3주일

2024년 3월 3일

제2607호



제대에 친구 口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탈출 20,1-17 또는 20,1-3.7-8.12-17
- 화 답 송 ◎ 주님, 당신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 2 독 서 1코린 1,22-25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 복 음 요한 2,13-25
- 영 성 체 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시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진동길 마리오 신부
교정사목 담당

나의 하느님

● 거울 앞에서 그를 보다.

마주한 거울 속에 그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내게 평화를 빌어줍니다.

거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만, 그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주한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줍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고 또 그가 있습니다.

● 내 안의 우상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안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안의 성전에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성전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분을 모르는 척, 못 본 척하면서 말이지요.

그 옛날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2-3)

그런데 나는 스스로 하느님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웃도 하느님도 내 맘대로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내 원의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느님보다 더 전능하고 하느님도 내 성전을 장식하는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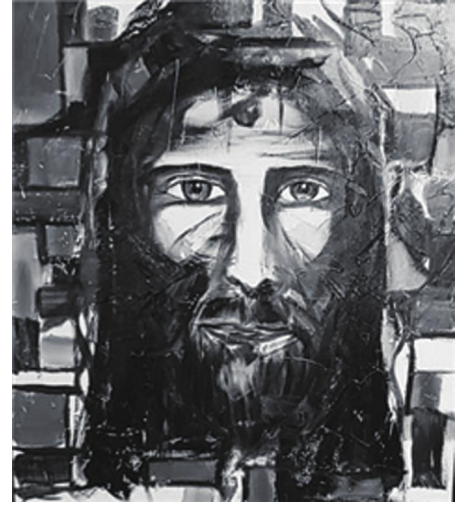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 바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하느님의 아드님은 내 안의 성전이 정화되기를 온몸으로 간절히 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요한 2,19)

● 누가 회개했을까?

회개는 매번 하느님께서 하시나 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듯, 언제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건 하느님이십니다. 어리석게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였습니다.”(1코린 1,25)

마주한 거울 속,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분이 내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2-3)



“마주한 거울 속,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분이 내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2-3)”



오룬대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오룬五倫 갖춘 노인이 바라보았다면 바위
그 이름 앞에 서면
입교와 수계생활 죄가 될 수 없다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세상 속
부지불식중 차가워지는 생생
비켜설 수 없는 두려움까지도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당신이 비추는 빛
예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 강렬하여
배교의 유혹 뿌리치고 가는 길
한없이 당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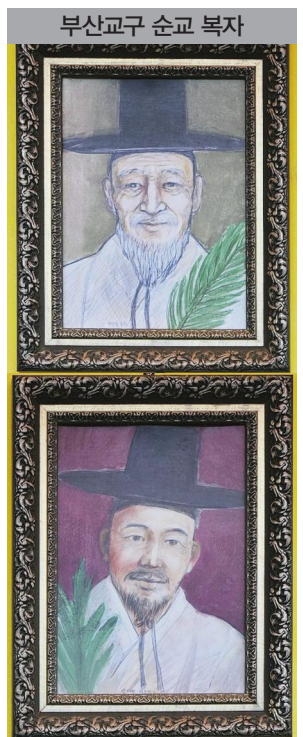
힘찬 걸음마다 흘리는 땀 물이 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
힘껏 안아주시니

언제나 지켜야 하는 도리에
한 줌 재로 서 있는 시간
순교자 묘지는 평화롭다

오룬대 순교자 성지

오룬대 순교자 성지는 부산에서 순교하신 여덟 분의 '부산 순교자 묘소'와 한국순교성인 103위 중 26위의 유해를 안치한 '순교자 성당'이 있는 곳이다. 이곳 부산지역에서는 1866년 병인박해에 이어 1868년 무진년 수영장대에서 이정식(요한)과 그의 가족들, 대자였던 양재현(마르티노)을 비롯하여 함께 옥에 갇혔던 여덟 분의 신자들이 군문효수의 극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 후 명장동에 묻혀있던 이정식 요한 회장의 가족무덤만이 조사 확인되어 이곳 오룬대로 이장하여 '부산 순교자 묘소'로 꾸며졌고 다른 네 분의 무덤은 가묘로 단장되었다.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는 2014년 8월 16일 복자품에 올랐다.

순교 100주년이 되던 해에(1968년) '한국 순교 복자수녀회'에서 오룬대에 수도원을 세우고 순교자 성당을 건립하였다. 2013년, 10월부터는 반세기 동안 성지를 관리해온 '한국 순교 복자수녀회'에서 부산교구로 성지의 관리 권한이 변경되어 이곳을 '오룬대 순교자 성지'로 명명하였다. 현재 성지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교구 평협 제54차 정기총회 및 복음화 대상 시상식 진행



교구 평협(담당: 주용민 리노 신부, 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 제54차 정기총회 및 복음화 대상 시상식이 2월 17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교구 내 본당 회장단, 교구 제 단체장, 교구 평협 위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총회에 이어 미사와 함께 진행된 복음화 대상 시상식에서는 복음화상 1명, 사회 봉사상 1명, 생태 환경상 1명, 정하상 바오로상 5명에게 수여하였으며, 본당 별로 공소 순례 축복장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제28대 평협 회장에는 이한규 안드레아(명서동본당)를 선출하였다.

주용민 리노 신부(교구 사무처장)는 강평을 통해 “평협의 활동이 활발할 뿐 아니라 실적 또한 높게 평가되고, 사업의 내용이 타 교구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제27대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신규 임원진에게 주님의 은총 충만하시고 평신도가 앞장서 일어서는 더욱 발전된 교구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정기총회



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시설협의회(회장: 황인균 요셉 신부) 정기총회가 2월 15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협의회는 교구 내 58개 사회복지 시설들이 카리타스 정신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총회 의결을 통해 서영옥 에스텔(진해청소녀수련관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황인균 요셉 신부(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여건 속에서도 카리타스 정신에 기반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하자고 전하였다.

교구 연령연합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교구 연령연합회(담당: 최훈 타대오 신부)는 지난 1월 20일 교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8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57개 본당, 181명의 본당 연령 회장단과 연합회 임원이 참석하였으며, ‘단순하고 기쁘게 봉사하라’를 주제로 한 최훈 타대오 신부(교구 사회복지국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2023년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2024년 업무 계획 등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새 임원진(회장: 정승한 예로니모)을 구성하고 2월 4일 진행된 첫 운영위원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신년도 상장례 교육, 연도 교육 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최훈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봉사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항상 함께하는 봉사 자세’를 갖추고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본당 연령회 활동 지원과 지구 연령연합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연령연합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이선향 안젤라 아동문학가/ 가톨릭문인회

정말 날벼락 같은 말을 들었다. 나는 절대 아닐 거라던 그런 일, 절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일,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닥친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나요?’

현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 뭔가 자료가 바뀐 오진일 거라는 생각에서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의사의 한마디는 마치 사형 선고 같았다. 실감 나지 않는 나날, 암울하고 실망스러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기 싫은 듯 아주 천천히 길게 지났다. 낮을 놓고 십자가를 보았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원망을 돌리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사형 선고 받으시는 주님이 떠올랐다.

‘왜 너한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예수님과 비교하니 할 말을 잃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지금처럼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나의 일상에서는 이리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무상으로 받은 생명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빼앗기는 양 억울해 한다.

‘이러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겠다.’

집 안 구석구석 정리를 하다 보니 켜켜이 쌓인 나의 욕심과 욕망에 얼굴이 부끄러웠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날 내겐 아무것도 아닐 그런 물건들, 옷들, 쟁여 놓은 생활용품이 참 많기도 하다. 애지중지 하던 찻잔을 바라본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지 않고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버려질 물건이다.

옷장 정리를 할 때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어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들었다. 많은 물품을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왜 진짜 삶을 가볍게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랑을 나누며 여행하지 못했을까? 또 언젠가 맞이해야 할 죽음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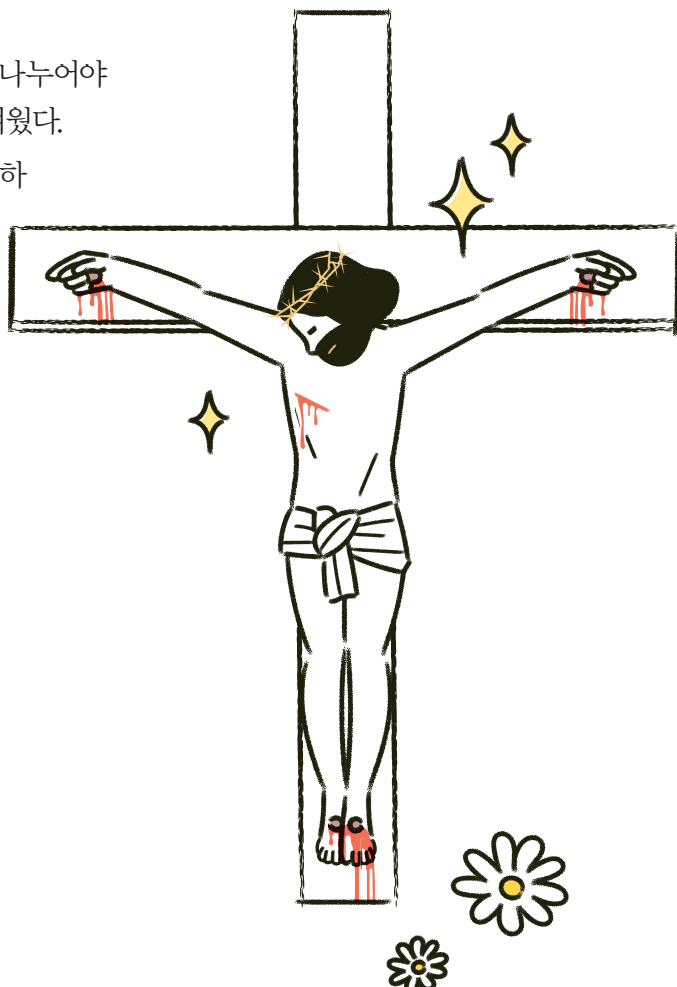
내 삶과 죽음이 모두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이토록 육신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왔고 죽음을 두려워하였을까?

사형 선고도 주님 안에서는 축복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기회였다. 현실은 참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 뜻을 따르지는 않았던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위안이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님을 따르는 거야. 죽음이든 고난이든 주님 뒤만 따라가는 거야!’

사형 선고를 한 번 받게 됨으로써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주님! 주님의 고난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소서!”





기억할 선종 사제



지대건(야고보) 신부
1990년 3월 5일



정수길(요셉) 신부
1978년 3월 6일



서원열(라파엘) 신부
1999년 3월 7일

교구장 서리 동정

춘계주교회의

일시: 3월 4일(월)~7일(목)
장소: CBCK

견진성사

일시: 3월 10일(주일) 10:00
장소: 진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 사목 방문

일시: 3월 7일(목)
본당: 장녕/ 남지/ 함안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6일(수)
본당: 사람동/ 중동/ 팔용동/ 대방동/
사파동/ 반송
일시: 3월 7일(목)
본당: 지세포/ 하청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3월 5일(화)
본당: 진영/ 수산
일시: 3월 6일(수)
본당 및 성지: 생림선교/ 명례성지/ 장동
일시: 3월 7일(목)
본당: 용잠/ 진례

교구/본당

전국 성소국 사제 모임

일시: 3월 4일(월)~6일(수) 2박 3일
장소: 춘천교구

광주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입학미사

일시: 3월 7일(목) 11:00

제26기 아버지학교

일시: 3월 9일(토)~10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사목국 신앙강좌

일시: 3월 9일(토) 13:00
장소: 교구청

신임 교리교사 연수

일시: 3월 9일(토)~10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교·여학생 성소모임 입학식

일시: 3월 10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3월 봉사자 기도 모임

일시: 3월 4일(월) 14:00/ 장소: 하대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의: 담당자 010·5116·2288

2024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1학기 수강생 모집

일정: 3월 11일~6월 24일, 15주간
개강일-3월 11일(월) 10:00
장소: 교구청
▶기초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제한없음(성별, 나이, 학력, 종교 등)
▶봉사자과정(매주 월요일 13:30)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기초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봉사자, 3)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자 *3가지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지도자과정(매주 월요일 10:00)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대상: 1)봉사자과정 수료자, 2)본당 제대꽃꽂이
5년 이상, 민간자격증 사범2 이상
*1, 2 중 1가지 해당되면 됨
문의: 성소국 055·249·7061, 010·9088·4864

기 타

순교 영성 피정

일시: 3월 22일(금)~24일(주일)/ 7월 5일(금)~7일(주일)
9월 2일(월)~4일(수)/ 11월 1일(금)~3일(주일)
장소: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인원: 60명
강사: 김경희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문의: 010·2265·2923(부산 면형강학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아트테라피와 함께하는 사순 피정

일시: 3월 23일(토)~24일(주일)/ 장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 문의: 010·2817·3101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 피정 접수 중)
일시: 4월 11일~13일/ 4월 16일~18일/ 4월 20일~22일/
4월 24일~26일/ 4월 28일~5월 1일(추자도)/
5월 2일~4일/ 5월 6일~8일/ 5월 17일~19일
문의 및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초대 조선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기원 및 현양을 위한 주제어, 독후감 공모전

대상: 청소년부, 일반부/ 기한: 4월 28일(주일)까지
주최·후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문화홍보국,
가톨릭출판사,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응모상세안내: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
martyrs.or.kr)/ 문의: 02·2269·0413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 나
눔, 울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5월 14일~16일/ 5월 27일~29일/ 6월 10일~12일/
6월 22일~24일
성지순례: 4월 13일~16일/ 4월 25일~28일/ 5월 2일~5일/ 5월 8일~11일
문의 및 접수: 02·773·1463, 064·756·6009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과정 추가 모집

추가모집: 3월 31일(주일)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2024년 교황청 꿈나무 캠프

일시: 8월 9일(금)~11일(주일) 2박 3일
장소: 서산 웨이크업 국제청소년센터
대상: 초등부 3~6학년 선착순 70명
참가비: 15만 원(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원 별도)
문의: 02·2268·7103/ 홈페이지: www.pmsk.net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3월 4일(월) 19:00	중앙동성당	너의 주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마태 4:10)	김현조 스테파노(前 전국성령봉사회장)	진동길 마리오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3월 10일(주일) 15:00	봉래동성당	010·9464·2089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 연락)	부산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 출발 4월 12일(금)~14일(주일)-수원교구 3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5월 13일(월)~16일(목)-일본 나가사키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대성익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달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2024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톨릭 문화원	3월 5일(화) 10:00	일반	요한 복음서
가톨릭 문화원	3월 5일(화) 12:30	통독	오경
구암동	3월 4일(월) 19:30	일반	요한 복음서
산호동	3월 7일(목) 20:15	일반	바오로 서간
상남동	3월 6일(수) 14:00	지혜	사도행전
양덕동	3월 4일(월) 10:00	지혜	역사서1
	3월 4일(월) 19:30	일반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영 산	3월 8일(금) 10:40	은빛	로마서와 코린토서
월 영	3월 5일(화) 10:00	일반	역사서1
	3월 6일(수) 20:10	일반	오경(탈출기)
월남동	3월 7일(목) 20:00	일반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의 령	3월 2일(토) 19:30	첫걸음	서간과 요한묵시록
	3월 6일(수) 10:30	지혜	역사서4(역대기)
진 동	3월 4일(월) 19:30	첫걸음	구약(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창 념	3월 7일(목) 10:00	일반	루카 복음서 · 사도행전
칠 원	3월 8일(금) 10:40	지혜	역사서2(사무엘기)
호 계	3월 5일(화) 10:00	일반	역사서1
창원지구			
가음동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대방동	3월 5일(화) 10:00	일반	예언서
덕산동	3월 4일(월) 19:30	일반	역사서2
	3월 5일(화) 10:00	일반	요한 복음서
반 송	3월 6일(수) 10:30	일반	오경(탈출기)
	3월 7일(목) 10:40	은빛	요한 복음서
사파동	3월 4일(월) 20: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3월 8일(금) 10:40	일반	오경(창세기)
수 산	3월 8일(금) 10:4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용 잠	3월 6일(수) 19:0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중앙동	3월 8일(금) 10:40	일반	마태오 복음서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정	과 목
가좌동	3월 6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거 창	3월 6일(수) 19:30	일반	예언서
금 산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남 해	3월 6일(수) 10:30	일반	역사서1
사 천	3월 4일(월) 19:30	일반	역사서2
	3월 8일(금) 10:40	일반	역사서2
산 청	3월 6일(수) 10:40	지혜	마르코 복음서
	3월 8일(금)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삼천포	3월 8일(금) 19:30	첫걸음	복음서와 서간
상평동	3월 6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신안동	3월 5일(화) 10:00	일반	마르코 복음서
옥봉동	3월 6일(수) 19:30	일반	오경(탈출기)
평거동	3월 6일(수) 10:40	은빛(종합)	요한 복음서
	3월 7일(목) 20:10	일반	예언서
함 양	3월 4일(월) 19:30	일반	예언서
거제지구·복지시설			
거 제	3월 8일(금) 10:30	은빛	요한 복음서
고 현	3월 8일(금) 10:40	일반	역사서1
대 건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2
북신동	3월 7일(목) 10:00	일반	역사서1
태평동	3월 6일(수) 19:30	일반	마르코
	3월 8일(금) 10:40	은빛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작은예수회	3월 7일(목) 10:00	은빛	신약(마태오)
장 평	3월 7일(목) 10:30	일반	마태오
지세포	3월 6일(수) 19:30	일반	시서와 지혜서
하 청	3월 8일(금) 10:40	일반	역사서2

★ 문 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제18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30일(월)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문 닫고, 들어온나!

황봉철 베드로 신부/ 성사전담

“문 닫고, 들어온나”

요즘은 아니지만, 내가 어릴 때는 참으로 자주 듣던 말이다.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놀다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열려고 하면, 방에 계신 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으레 하시는 말씀이었다. 바람이 차고 추우니까 빨리 들어와서 문을 닫으라는 말씀이다. 따지고 보면 문을 닫고 어찌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들어와서 문을 꼭 닫아야 했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조되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어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요한 1장 18절을 예로 들어보겠다.

1) 희랍어 본문:

하느님을 아무도 아니 보았다 일찍이, 홀로 태어나신 하느님, 그분 그 아버지의 그 품으로 계신 저분이 알려주셨다.

2) 라틴어 번역:

하느님을 아무도 아니 보았다 일찍이, 홀로 태어난 아들, 그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저분이 알려주셨다.

3) 영어 번역:(King James Version 1611/1769)

아무도 아니 일찍이 보았다 신을, 홀로 태어난 아들,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가까이 있는 저분이 그분을 알려주셨다.

4) 독어 번역:(Einheitsuebersetzung 1980)

신을 아무도 아니 보았다 일찍이, 그 홀로 태어난 아들, 그는 그 아버지의 그 가슴에 기댄 자, 그분이 알려주셨다.

5) 가톨릭 새 번역:(2005)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6) 가톨릭 공동 번역:(1977)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7) 개신교 관주 번역:(1961)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8) 개신교 새 번역:(2001)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 보자. 1) 하느님, 2) 아무도, 3) 일찍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말할 것도 없이, “일찍이”보다, “아무도”보다 “하느님”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희랍어 본문이 그 의미를 잘 들어내고 있고, 라틴어 번역과 독어 번역이 희랍어 본문의 어순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성전 정화

오늘 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요한 2,16) 타락시킨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섬뜩하게 전해집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자를 파멸시키실 것”(1코린 3,17 참조)이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하느님의 성전”(사도 바오로)인 우리 인간과 “하느님의 발자취”(마이스터 에카르트)인 모든 피조물의 집이자 “우리의 어머니”(교황 프란치스코)인 지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호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도록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빌려준 자산입니다.”(프란치스코, ‘2015년 아이디어 엑스포’ 영상 메시지 중에서)



생태 위기는 신앙의 위기이다

기후 위기, 생태적 위기에 관해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정치적 이슈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무관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급한 사회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기후 변화, 환경 보호 같은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후 문제나 생태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통계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 인종적으로는 백인,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들이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추기경은 “과거에 이교도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동물은 물론 심지어 인간 까지도 희생시켰지만 헛된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환경주의가 위험한 종교 교리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교황 프란치스코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반포되었을 때, 회칙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교회의 어느 고위 성직자의 왜곡된 생각이라고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명 ‘샤이 기후 부정론자’들도 교회 내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기후 변화를 교회에서 굳이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교 신앙이 기후 변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1970년대 이후, 교황님들의 각종 회칙과 담화문 곳곳에서 등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창세기에서도 이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창세 3,17)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생존 배경인 땅도 저주받게 한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인간을 둘러싼 환경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성경의 서간문은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로마 8,21-22)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쪽만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한쪽만이 구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당신의 회칙과 글을 통해 강조하십니다.(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19항 참조.)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당신의 교황 즉위식에서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베네딕토 16세, 즉위 미사 강론 중.)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영적, 윤리적 문제가 어떻게 외부의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내적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기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자리와 도덕성을 내치고 황폐시키게 될 때, 결국 그 내적으로 황폐함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하느님 것을 인간이 소유하려는 것이었고,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고자 했던 불순종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를, 지금의 인류 또한 같은 방식으로 더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인류가 범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한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찬미받으소서』, 6항.) 된다고 말씀하시며, 현재의 기후 위기, 생태적 위기가 그저 자연 현상이나 사회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만물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 고백과는 무관하게 되어, 인간의 이익을 위해 파괴되고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가 입에 올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라는 말조차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인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 생태 위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s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코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탄소 발자국^{2019*}을 줄입시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19년입니다.

실천사항 3 재고하기_Rethink

'몸에 좋은 소고기'의 불편한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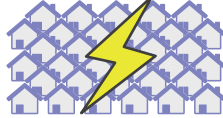
소고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경계없는 학교
카우스피라시: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소고기에
관한 음모와 불편한 진실



미국 소목장 한 곳의
메탄*가스 발생량

*메탄(CH₄):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온난화 영향



연 15,400가구
전력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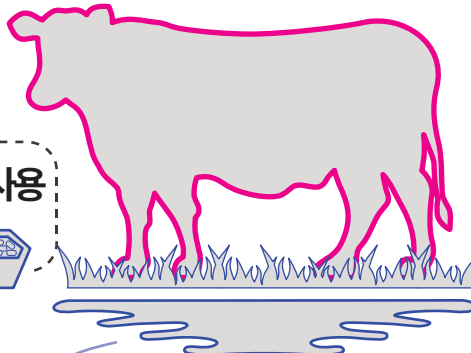
하루 메탄*가스 발생량
100~500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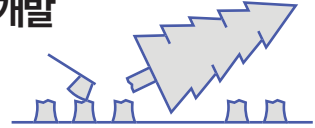
UN 식량농업기구(FAO)는
기후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축산업을 지목



전 세계 생산 곡물 50% 동물 사료로 사용
→ 기아 급증(10억명)



브라질 산림법 통과 후,
아마존 밀림을 가축
방목지와 사료 재배지로
개발



기존 생태계 파괴
원주민 생활 터전 상실

1년 동안 12,000,000,000,000L
[축산업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하는 물]

함께! 지켜요, 금육재

사순 시기 금요일에는,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금육재를 꼭 지켜 봅시다.

1. 제철채소 섭취하기

- 쑥, 달래, 냉이 등으로 요리하기
예) 쑥떡, 달래장, 냉이 된장국 등

2. 대체육 이용하기

- 콩고기, 배양육 등을 이용하여 요리하기



다시! 생각해요 :)

친환경쇼핑하기

1. 커피, 초콜릿 등을 구입할때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으로 만드는 '공정무역제품'
확인 후 구입하기
2. 온라인 주문 전, 직접 살 수
있는지 찾아보기

